

## 이란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

- EU 각국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UN 제재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EU는 지난 달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 26 EU 각료회의에서 에너지, 기술, 교역, 금융 등 분야의 새로운 제재 방안을 채택할 것이며 9월 EU 집행위는 동 제재 이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할 예정임.
- 미국 및 EU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 등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이란과 비교적 교역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여 왔던 이탈리아 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정부의 기본입장은 원칙적으로 UN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을 감안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EU의 대이란 제재활동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임.
  - 현재 이란과 거래중인 이탈리아의 주요기업은 석유회사 ENI사로서 ENI사는 이란측과 신규 사업(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단, 과거에 체결한 계약은 그 사업기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행될 것으로 봄.
  - 이탈리아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이란과의 거래보다는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중시하여 자발적으로 이란과의 거래를 단념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은행(지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음. 거래 금지 지정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거래 가능은행의 경우에도 이란과의 금융거래 활동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란산 원유 수입문제는 UN 제재 결의, 미국의 제재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대이란 제재와 무관함. 따라서 이태리도 이란산 원유 수입 활동을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정제된 원유(refined oil)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이란의 주요 교역 허브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AE는 자국이 일원으로 있는 UN 결의안에는 협조할 것이나 미국, EU 등 외국의 자국내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UN 결의안 1929가 6월 9일 표결로 통과되자 UAE 중앙은행은 6월 24일 UN 결의안 1929의 제재대상인 자연인/법인과의 거래를 동결, 중단하라는 대 은행, 환전소, 투자 및 금융기업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음.
  - 술탄 알소와이디 UAE 중앙은행장은 6월 28일 바젤에서 UAE는 UN 결의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7월 1일 미 대통령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서명 이후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EU 등이 UAE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나 압박을 하지 않는 한, 미국, EU 등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그러나 계속되는 금융 위기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바, 미국 등의 제재 강화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란 주재원 제공>